

중국의 '13.5' 계획: 기회, 도전 및 발전방향

2016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의 '13.5' 계획: 기회, 도전 및 발전방향>
2. 일 시 : 2016. 3. 24(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마샤오허(馬曉河) 부원장

1. 13.5계획 기간 중 대내외 환경 분석

가. 대내환경

- (전략적 기회) 13.5계획 기간 중 개혁의 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일대일로를 통한 새로운 해외투자 전략 등을 통한 성장 기회를 마련
 - 중국 정부는 13.5계획 기간동안 경제전반의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 18기 5중전회에서 행정관리, 소유제 구조, 국유기업, 시장 메커니즘, 조세제도, 금융, 호적제도, 국민소득분배, 사회보장 제도 등 개혁을 추진을 통해 경제를 개방하는 새로운 체제 구축을 제시
 - 향후 5년 동안 신흥산업의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지역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 등 추진

◦ 13.5계획 기간 중 6대 신흥산업의 잠재 생산액은 총 60~8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① 건강산업(14~16조 위안) ② 문화산업(11~16조 위안) ③ 친환경산업 (11~16조 위안) ④ 차세대 정보산업(12~15조 위안), ⑤ 첨단장비산업 (8~10조 위안) ⑥ 관광업 (5~6조 위안)

◦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11 행동’, ‘중국제조 2025’등을 시행하며, 창장경제벨트, 징진지 공동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

◦ 예컨대 창장경제벨트를 적극 건설하여 지역간 인프라시설 네트워크(황금수로, 고효율 철도, 편이한 도로, 선진적인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 도시간 교통)를 구축하고 광역도시권,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거액의 투자와 소비를 견인

–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해외투자 전략을 시행

◦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 주변국가의 인프라시설 부족, 대내적으로 풍부한 유동자금과 극심한 생산과잉 현상이 병존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통합하고, 동쪽으로는 아태지역의 통합을 추진하여, 일대일로 주변국가와의 정책소통, 인프라건설, 무역원활화, 자금유통, 민심소통을 실현하고 철도, 도로, 수로, 항로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중국정부는 이미 육상(일대, 一帶)에서 신유라시아대륙교, 중국-러시아-몽골,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등 4대 경제협력회랑을 구축하고, 연해(일로, 一路)에서는 중점항구를 위주로 안전적이고 고효율적인 운송로 확보를 위해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2개 경제회랑을 건설

◦ 13.5계획 기간 중 아시아지역의 인프라시설 수요 투자액은 연평균 7,3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경제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임.(터키의 고속철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태국 고속철도,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에티오피아 모타 철도는 모두 중국이 건설하였거나 건설 예정)

– 중국의 대규모 유동자금과 풍부한 인적자원은 향후 중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

◦ 중국정부는 대규모 자금력(3.2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135.7조 위안의 사회저축액)과 풍부한 인적자원(9억 명의 노동자, 1억 명의 고학력자와 전문기술자)을 보유

□ (도전) 13.5계획 기간 중 지속적인 노동비용 상승, 총요소생산성 하락, 금융리스크 확대, 과잉생산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 가능

–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보너스가 감소하는 등 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부양비율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3.5계획 기간 중 연평균 500여만 명(총 2,320만 명) 감소가 예상되며, 2020년 이후 연평균 660만 명 감소하여 2025년이 되면 노동인구는 8.74억 명(2012년 대비 6,300만 명 감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60세 이상 인구는 2.12억 명에서 2020년 2.54억 명(4,200만 명 증가)에 달하여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표 1. 중국 60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변화

연도	60세 이상 인구비중(%)	80세 이상 인구비중(%)	10년당 60세 인구 증가 수(명)
2010	13.3	11.82	-
2020	18.0	12.08	0.73억
2030	26.0	12.65	1.09억
2040	31.5	16.78	0.62억
2050	36.6	24.20	0.43억

-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및 핵심기술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어려움 증대
 - R&D 투입과 우수한 인재 부족으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하락, 핵심기술의 부족, 혁신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공정한 시장 환경의 결여
- 누적된 금융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경제사회 발전의 불확실성 확대
 - 현재 중국의 정부채무 20조 위안, 기업채무 80조 위안, 개인채무 24조 위안으로, 중국의 레버리지비율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높은 수준(250~280%)이며, 13.5계획 기간에 리스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분야별로 주식시장, 생산과잉산업, 부동산 분야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이고, 주체별로 볼 때 지방정부, 기업, 민간, 온라인 분야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표 2. 2005년 이후 중국의 레버리지비율 현황(%)

연도	채무/GDP	원리금/GDP
2005	138	73
2006	134	73
2007	132	74
2008	128	82
2009	156	80
2010	167	80
2011	165	89
2012	184	108
2013	203	133
2014	211	138

- 극심한 생산과잉 문제로 인해 자원환경에 대한 제약이 강화
 - 중국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은 80% 미만(일부 산업은 70% 내외에 불과), 그 중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판유리,

코코스, 자동차, 가전제품, 전화기, 핸드폰, 담배 등의 설비가동률은 50%~70%에 불과

- 특히 중국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해 등 산업은 절대적으로 생산과잉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같은 극심한 생산과잉 문제를 중국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 한편, 생산과잉 문제는 이미 신흥산업에도 발생

표 3. 일부 공산품 생산량 통계(2014년)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의류	298.95억 개	코코스	4.798억 톤
가죽 신발	45억 켤레	시멘트	24.9억 톤
가구	7.78억 개	판유리	8.3억 상자(重量箱)
실내 에어컨	1.446억 대	철강	11.25억 톤
전기밥솥	2.8억 개	엔진	21.4억 킬로와트
핸드폰	16.27억 대	집적회로	1,034.8억 개
컬러 TV	1.41억 대	천(布)	893.7억 미터
오디오 기기	1.2억 대	소형 컴퓨터	3.51억 대

나. 대외환경

- (전략적 기회) 주변국가의 발전, 첨단산업의 발달, 주변국의 산업발전 및 산업 정책변화 등 은 중국경제에 성장기회를 마련
 - 13.5계획 기간 중 일부 중저소득국가는 중고소득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산층 인구의 증가는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중국에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
 -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정보, 신소재, 신에너지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산업의 발달은 점진적이고 침투성이 강하며 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첨단산업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첨단산업의 발달을 통해 새로운 경영방식, 신제품, 신모델, 신산업이 출현할 것이고, 이는 기존 생산과 생활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다축무인비행기, 지능로봇, 3D 프린터, 무인자동차, 지능 당나귀로봇, 로봇셰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하이퍼루프 시스템(1,220km), 홈 스마트화, 메모리 안경, DNA 바이오정보 카드 등 분야의 발전이 기대
 - 한편, 이미 수직 비행 가능한 전자기무의 비행체, 인체 생물전기를 에너지로 공급하는 양자 컴퓨터, 수소연료를 통한 운송변혁, 나노기술을 통한 칩 생산, 나노 로봇을 통해 혈액 속의 혈지,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개통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유전자제조기술, 인체세포 검사측정, 이식, 복제 및 동물체에서 인체 장기를 배양하는 기술이 개발 중

-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은 중국의 산업발전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
- (주요 선진국의 산업발전 정책) 공업 4.0(독일), 제조업의 재조정(미국), 신성장 전략(일본), 제조업 혁신 3.0(한국), 영국 제조 2050(영국), 신공업 프랑스(프랑스) 등

[참고] 독일의 산업 발전 전략

- (공업 1.0) 1784년에 첫 번째 방직기계가 출시되면서, 스팀엔진 사용한 기계생산을 통해 제1차 산업혁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
- (공업 2.0) 1870년에 신시내티 도축장 생산라인을 위주로 전기를 엔진으로 한 대규모 생산이 출현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진행
- (공업 3.0) 1969년에 첫 번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인 Modicom084가 개발되면서 전자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한 자동화생산이 나타나면서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
- (공업 4.0) 정보,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기술 융합을 핵심으로 하여 물리적 정보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화가 이루어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 2025년이 되면 12대 기술은 40.4조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

2025년 글로벌 12대 신기술의 잠재적 가치 예측

기술 프로젝트	영향범위	잠재적 경제효과(조 달러)
이동인터넷	10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분야의 근로자	3.7~10.8
인공지능	2.3억 명에 달하는 전문가	5.2~6.7
사물인터넷	1만대 로봇	2.7~6.2
클라우드 컴퓨팅	20억 명의 근로자	1.7~6.2
지능로봇	3.2억 명의 노동자 대체	1.7~4.5
스마트 자동차	10억 대의 스마트 자동차	0.2~1.9
유전자 기술	2,600만 명의 암환자 치료	0.7~1.6
에너지 비축	10억 대 차량	0.1~0.6
3D 프린터	3.2억 명 근로자	0.2~0.6
신소재	모든 탄소소재, 규소소재 대체	0.2~0.5
석유가스 개발	520억 배럴의 석유/년	0.1~0.5
재생가능한 에너지	21,000TWH 전기	0.2~0.3

- (도전) 13.5계획 기간 중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 발달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중국 제조업의 우위 하락, 위안화 환율 절상, 세계 정치경제의 구조 조정 등 요인은 중국경제의 리스크를 확대
 - 첨단 제조업이 선진국으로 회귀하고, 전통제조업은 중저소득 국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마이크로 소프트, 파나소닉, 다이킨, 샤프, 시티즌, 유니클로, 나이키, 폭스콘, TDK, 후나이 일렉트릭, 클라리온, 삼성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거나 철수를 준비 중
 - 나이키 운동화의 경우 2002년 전세계 생산총량에서 40%는 중국, 13%는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지만, 2012년 이후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
 - 또한 일부 유럽기업은 중국에 보유했던 노동집약형 산업기지를 동남아 및 남미 국가로 이전
 - 이는 중국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면서 수출지향성 산업의 경쟁우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
 - 2009년 기준 유로화 및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9.7971, 6.8282에서 2016년 3월 18일 7.3253, 6.4628로 하락하여 각각 25.23%와 5.35% 절상
 - 한편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구축, 러시아 주도 of 중아시아 경제통합 강화 등 세계정치의 구조조정이 예상

2. 13.5 계획의 주요내용

-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中國夢)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 사회'건설 목표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3.5계획 기간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 유지를 목표로 설정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6대 원칙, 전면적 '샤오강 사회'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7대 목표,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대 발전이념을 제시
- 13.5계획 기간 동안 국민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
 - (중고속 성장 유지) 2020년 GDP와 주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 13.5계획 기간 서비스산업화, 노동생산성 증대, 도시화를 통해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2020년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실현

- (혁신주도 발전)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진보, 인터넷경제 구현 등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
 - R&D 투입/GDP 비중과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 증가를 통해 혁신형 국가와 인재강국으로 발전
- (균형발전 강화)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 증대, 호적인구의 도시화율 향상
 -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제고하고 2020년까지 호적인구 도시화율을 45%(2014년 말 현재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37%로 추정)로 달성
- (민생수준 제고) 고용창출, 교육, 문화, 사회, 의료, 주택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 완비, 균등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득격차 축소, 농촌인구의 빈곤퇴치 추진, 빈곤 현(顯)을 개발하여 지역적 빈곤문제를 해결
- (국민의 소양함양 및 사회문명 수준제고)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
- (생태환경 개선) 녹색, 저탄소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추진, 주체공농구 배치와 생태안전 보호막을 기본적으로 형성
- (제도의 성숙화정형화)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 발전시키고 각 분야에 기본적인 제도시스템 정비, 국민 민주를 완비하고 법치정부, 인권 보장, 실질적 재산권 보호, 새로운 개방형 경제 메커니즘 형성

□ 전면적 샤오강 사회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대 발전 이념(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유)을 제시

- (혁신 발전)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추진, 국가 과학기술센터와 기술혁신센터 건설, 선두기업 육성
 - 2020년에 GDP 대비 R&D 비중을 2.5%, GDP에 대한 과학기술 기여율을 60%로 향상
- (균형 발전) 3개 1억명 인구 문제('1억 명 농민공 도시호적 제공', '1억 명 거주 도시 빈민촌 개량', '중서부 내륙 지역 1억 명 인구 도시화)를 해결하고 상주인구 도시화율과 호적인구 도시화율을 각각 60%와 45%로 향상
 - 3대 전략(창장경제벨트, 징진지 공동발전, 일대일로)을 추진하여 종적·횡적 경제축을 형성하고 광역도시권과 성장동력을 육성
 - 고속철도 노선을 3만 킬로미터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노선 3만 킬로미터를 신규 증설
- (녹색 발전) 대기, 물, 토양오염 예방·관리 행동계획을 실시하여 GDP 단위당 용수량,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3%, 15%, 18% 감축
 - 삼림 복개율을 23.04%로 향상시키고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공기 우량일수가 80% 이상에 달하도록 노력
- (개혁개방 발전) 현대 재산권 제도, 법치정부를 건설하여 자원배치에 대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시행
 - 일대일로 전략이 중대한 발전을 가져오고 국제 생산력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

- (공동향유 발전) 민생에 역점을 두어 기본적인 민생보장에 대한 유효공급을 확대하고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며, 빈곤현(顯)의 개발을 통해 지역적인 빈곤문제를 해결
 - 의무교육 표준화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확대
 - 5천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실현하고 소득분배 제도를 완비하며 중등소득인구 비중을 확대
 - 주택보장 제도 완비, 2,000만 채의 도시 판자촌 주택 개조, 건강한 중국을 건설하여 1인당 수명을 1세 연장
- 159건의 중대 정책, 중대 과제, 중대 행동, 중대 계획을 제시하여 과학기술 혁신, 구조 고도화, 인프라시설, 생태환경, 민생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3. 13.5계획 기간 중 거시정책 기조

□ 13.5계획 기간 중 핵심과제로 공급측 개혁을 제시

- 과거 1970~80년대 영국, 미국에서 시행된 공급경제학과 정책(긴축적 통화정책, 전면적 감세정책, 복지지출 축소)과 달리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안정적 통화정책과 구조적 감세, 다행한 개혁 정책의 시행, 민생개선을 통해 시행
 -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광범위한 정책으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
- 현재 중국 경제는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과잉생산설비, 기업의 비용증대, 막대한 부동산 재고, 자본시장의 미성숙 등 공급측면의 개혁이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총수요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을 높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공급측 개혁을 제시
 - 공급측 개혁의 주요 정책과제는 △ 과잉생산 감축 △ 기업원가 절감 △ 부동산 재고 해소 △ 금융 및 기타 리스크 통제 △ 유효공급 확대
-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급시스템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여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수요에 집중했던 거시경제관리에서 총수요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임.

□ 13.5계획 기간 동안 공급과 수요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해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를 구축

- 13.5계획 기간 동안 GDP(90조 위안 이상)와 주민소득 2배 증가, GDP 연평균 성장률 6.5% 이상, 주민소득 증가율이 6.5%이상 달성
- (수요측 개혁) 주민소비 증가 위주로 개혁 시행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완비하여 소비환경 개선

- (공급측 개혁) 중저급 제조업에 대한 자본의 과도한 투입을 억제하고 첨단분야에 많은 자본이 유입되도록 유도
 - 빈곤층의 취업, 의식주, 사회보장 등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위해 공평한 관상학(官商學) 환경을 구축하여 소비지향, 서비스업 주도, 중산층 위주의 시민사회 체제를 구축
-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각 계층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 중국정부는 13.5계획 기간 중 공급측 개혁에 입각하여 5대 임무와 정책기조를 제시

- 2016년은 13.5계획을 실시하는 첫 번째 해로 안정적인 성장 유지, 구조조정과 민생혜택 추진 등을 통해 5대 임무와 5대 기조를 시행
 - 2016년은 GDP 성장률은 6.5~7%, CPI 3%, 신규고용창출 1,000만 명 등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고, 무역의 안정적 발전과 경제성장과 주민소득이 동시에 증가하도록 추진할 예정
- (5대 임무)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비용절감, 부동산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예방, 유효공급 확대
- (5대 정책기조)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 정확한 산업정책, 미시정책의 유연성 확보, 개혁정책의 실효성 확보, 민생지원
 -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조성) 적극적인 재정정책 강화, 감세정책 실시, 4개 산업에서 추가로 영업세 개혁을 추진, 18가지 행정비용 징수 면제, 재정적자율 3%(2.18조 위안)로 통제, 유연하고 적절한 통화정책 실시, 사회용자율을 13% 내외로 달성하여 융자비용 절감, 대출구조 최적화, 환율형성 메커니즘 완비 등
 - (정확한 산업정책) 농업의 현대화 추진, 제조강국 건설 가속화,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 인프라시설의 네트워크 수준 향상,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 혁신주도형 성장 견지, 유효공급 확대, 녹색성장 가속화 등
 - (미시정책의 유연성 확보) 기업과 소비자 잠재력 활성화, 제도적으로 완화된 시장경쟁 및 투자환경 형성, 각종 소유제의 혁신적인 발전 권장 및 지원 등
 - (개혁정책의 실효성 확보) 집행 메커니즘을 완비, 개혁시범 추진, 부처간 조율강화 등
 - (민생지원) 민생지원,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국민의 기본생활수준 보장,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등

□ 13.5계획 기간 중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형성 여부

- 2015년 7월 4일 국무원은 <인터넷+행동 적극 추진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인터넷+' 창업혁신, 공동제조, 현대농업, 스마트 에너지, 일반우대 금융, 국민혜택 서비스, 고효율 물류, 전자상거래, 편이한 교통, 녹색생태, 인공스마트 등 11대 중점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중대한 프로젝트를 지원
- 2025년까지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공동화된 산업 생태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초보적으로 형성
- 2015년 5월 19일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의 행동 강요를 제시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 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구장비, 신재료,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

대 분야를 발표

- 체제개혁, 시장환경 개선, 금융지원, 조세재정 지원,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원, 대외개방, 정책실시 등 8가지 지원 및 조치 실시, 아울러 금융체제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융자루트를 확대하며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자금이 스마트제조에 많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며 PPP모델을 적극 추진

4. 13.5계획 기간 경제성장세 전망

□ 13.5계획 기간 중국경제의 성장세 예상

-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V형, L형, 지속적인 둔화형으로 예상 가능
- 13.5계획 기간 동안 중국정부의 사회경제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중국 경제는 회복되면서 V형 성장이 예상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L형 성장세가 예상
- 반면 개혁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13.5 계획 기간 GDP에 대한 예측

- 13.5계획 기간 중국의 GDP는 90조 위안을 초과하고, 1인당 GDP 역시 증가되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기준 13.5 계획 기간에 성장률을 각각 7%(낙관), 6.5%(기준), 5%(비관)로 설정하여 전체 GDP와 1인당 GDP를 예측
- 위안화 절상폭 4.5%, 연평균 물가상승률 1.5%, 총인구 14.3억 명으로 가정
- (예측 결과) 2020년 중국의 GDP성장률이 7%, 6.5%, 5%일 경우, 중국의 전체 GDP는 각각 104.19조 위안(16.81조 달러), 101.78조 위안(16.42조 달러), 94.81조 위안(15.29조 달러) 로 예측되며, 1인당 GDP는 각각 11,751달러, 11,479달러, 10,69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수치를 살펴보면 13.5계획 기간 성장률이 7% 미만일지라도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상회
- 13.5계획 기간 중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중국의 GDP 총량은 2020년에 약 17조 달러에 육박(성장률 6.5% 경우 GDP는 16.4조 달러, 성장률 5%일 경우 15.3조 달러 달성)
- 따라서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13.5계획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경제의 질과 효익을 향상시키는 전제하에서 안정적으로 6.5% 이상(6.538%)을 유지

표 4. 중국의 2020년 GDP 성장률

	성장률 (%)	GDP (만 달러)	1인당 GDP (달러)
낙관	7.0	168,045	11,751
기준	6.5	164,155	11,479
비관	5.0	152,916	10,693

- 일부에서는 13.5계획 기간 중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
 - o 개인적으로는 13.5계획 기간 중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14.5 계획 기간에는 미국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 국가의 경제 발전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GDP 총량 이외 경제구조, 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3.5계획 기간 중 사회경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

<질의응답>

질문 1.

13.5계획 기간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5대 발전이념 등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시행할 것인데, 이런 배경 하에 향후 5년간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은가?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하는가?

답변 1.

우선 한국기업은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목해야 함. 특히 현재 중국정부가 13.5계획 기간의 주요 거시경제 방향으로 제시한 공급측 개혁관련 정책은 중국내 기업경영에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임. 예컨대 감세, 비용감소, 행정심사 권리 이양 등 관련정책 변화를 주의해야 함. 또한 현재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첨단제품을 생산 판매해야 함. 특히 중국정부가 발표한 향후 시장에서 도태시켜야 할 15대 산업과 첨단산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업기회를 포착해야 함.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관련 정책은 ‘인터넷+ 11대 행동’, ‘중국제조 10대 영역’, 13.5계획에 포함된 159건 중대 프로젝트이며, 관련 정책에서 언급된 산업, 제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함. 또한 중국 정부에서 생산과잉산업으로 분류하여 도태산업에 포함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중국내 경영환경이 어려워 질 것임. 물론 도태산업영역에 속하지만 첨단산업 혹은 수요가능한 제품으로 개조 가능시 중국에서 사업발전 가능성은 높음. 예컨대 시멘트 산업은 도태산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항 활주용 시멘트 분야는 중국에서 여전히 발전기회가 많음. 또한 철강산업 역시 도태산업이지만 엔진용 베어링에 사용되는 철강에 대한 수요는 많음. 즉, 전반적으로 중고급제품, 중고급산업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고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생산과잉 문제를 유의해야 함. 중국의 생산과잉은 중저급 산업영역 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음.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과잉 국가로 소비가 적은 반면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한곳으로 집중 투자되는 경우가 많음. 예컨대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핸드폰 등 산업에서 이미 생산과잉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향후 무인기, 인공지능 로봇분야 역시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아울러 중국의 환율변화 역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함.

질문 2.

13.5계획 기간 중 중국이 한국과 협조할 수 있는 분야, 즉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현재 서방국가에서 중국의 금융위기를 많이 예상하고 2015년에 실제로 붕괴가 많았는데 13.5계획에는 금융분야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위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2.

한중 양국은 무역분야에 있어 상당히 긴밀하고 빠르게 발전해 왔음. 13.5계획 기간 중 중국은 한국과 중고급 분야,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 한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 한중 FTA는 이미 발효하였는바,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임.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정보기술, 철강, 첨단제조, 로봇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로봇산업 관련해서 중국의 1만 명 근로자당 로봇 보유대수는 14대로 한국보다 10배 이상 적은 수준임.

중국정부는 18기 5중전화와 13.5계획 강요에서 모두 금융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제개혁을 통해 시스템적이고 지역적인 리스크를 방지하겠다고 언급했음. 금융업의 중점적인 단속분야는 바로 채무분야(지방채, 기업채)임. 업종별로 볼 때, 생산과잉 산업, 부동산, 주식시장, 민간금융, 온라인 금융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개혁이 가속화 될 것임. 전반적으로 볼 때, 13.5계획 기간 중 중국의 금융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며, 총 부채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250%~2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